

2022년 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2년 12월 8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김 용 식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7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체계와 목차는 지난 9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최근 정책여건 변화와 정책수행 상황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하였음. 특히 국내외에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집필대상 기간 중의 정책결정 및 인상폭에 대한 판단근거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향후 물가의 상방압력 지속 가능성과 성장의 하방압력 확대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음. 또한 국내외 통화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에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참고 박스 등을 통해 최근 시장 불안의 전개 양상을 세밀히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미시적 시장안정 대책과 이후의 상황을 다각도로 평가하기로 하였음. 이 밖에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노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한편, 독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 개요를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기술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3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최근 단기금융 및 채권시장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주요 시장안정 대책, PF 대출 관련 리스크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관련 서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의 기저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지속하는 등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응시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산업 전반으로의 임금 상승세 확산 여부가 향후 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산업별 명목임금 동향에 대한 서술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물가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보강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반응 분석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의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기존 발간자료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한국은행 발간자료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안) (생략)